



그린농원을 찾아서 ...

황산벌 전투
계백장군과 5천 결사대의 격전지
백제와 후백제의 대치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이곳 충남 논산시 연산면 정동리에
살아있는 우리 조상수렵회 본회 이사이며 충남조경수유동센터의 조합장을 맡고 있는
이상권 시장의 그린농원을 찾았다

글: 사진 사진작가 김혜승



이상권
(그린농원 대표)

호남선 열차와 국도 1호선이 지나는 교통의 요지이고 각종 물산이 풍부한 지역으로 옛날부터 연산군·현의 중심지로 이름난 고을이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은진군과 합쳐 논산군이 된 이후 그 유명한 육군 논산훈련소 덕분에 과거 번창했던 연산은 어느새 우리 생활에서 잊혀져 이름없는 시골 면소재지가 되었지만, 그 옛날 백제의 5천 결사대가 신라 김유신의 7만 대군과 맞서 싸웠던 황산벌이 바로 이곳이고, 후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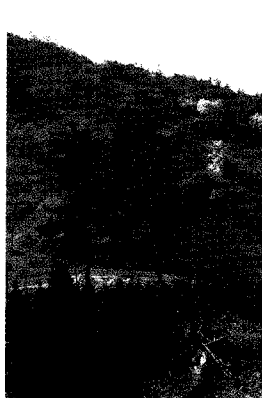
제 견훤의 아들 신검과 고려 태조 왕건의 최후 격전지도 바로 이곳 연산면이다. 당시 신검은 산위 황산성에 진을 치고 고려 태조 왕건은 산 아래 개태사라는 절에 진을 치고 대치하던 중 김계 금산사에 유폐되었던 견훤이 탈출하여 개태사에 있던 왕건을 찾아가 아들 신검을 패망시켜 줄것을 부탁하니 신검이 불리함을 알고 백기 투항. 후백제의 최후를 맞은 곳이며, 그 후 왕건의 유화책에 불만 등장이 난 견훤이 개태사에서 임종을 하



주목나무와 농장전경



기토수를 소나무 포자와 배나무 과수원



니 이곳 연산면은 그야말로 백제·신라·고려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유서 깊은 고장으로 연산면 소재지 마을인 청동리의 논산-대전간 1번국도 4차선 도로변 야트막한 야산에 자리한 30여ha 12만평의 넓은 면적에 잘꾸며 놓은 공원같은 농장인 그린농원이 한눈에 들어왔다.

철도공무원직을 거절하고 전자제품 판매원으로

그린농원 이사권 사장의 고향은 바로 지금 농장이 있는 연산면 소재지인 청동리에서 아들만 다섯인 집안의 둘째로 1952년도에 태어나 철도 공무원인 부친 영향으로 1971년도에 대전에 있는 철도 관련 고등학교를 졸업, 당시만 해도 취업하기가 힘든 시절에 대전역에 발령 받았으나 늘 박봉에 시달리던 부친 생활을 보며 따분하게 생각되었고, 무엇보다도 한곳에 틀어박혀 근무해야 된다는 것이 생각만 해도 답답하여 도저히 적응하지 못하고 주위의 만류와 부모님의 분노를 뿌리치고, 그야말로

로 가출 아닌 가출을 하여 서울 청계천의 전자제품 판매상회에 취업, 자유롭게 활동하며 전국 각지를 돌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품을 판매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도 재미있고 보람되고 뿌듯할 수가 없었다 한다. 군입대전 2년간과 제대 후에도 곧바로 판매업에 뛰어들어 남다른 노력과 수완으로 높은 판매 실적을 올리고 특히 성실한 성품 덕에 어린나이에도 판매부장이라는 직함을 받아 그야말로 젊음의 끼를 한껏 발휘하였ند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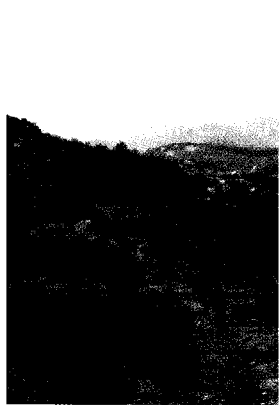
꿈을 이룬 중등 드림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 도전해보고 싶은 꿈이 가득한 그에게 당시 우리경제의 한축을 담당했던 중등바람이 불어 사우디아라비아의 건설현장(한양건설)에 사무보조원으로 취업하여 2년간 생활해보니 남들은 외롭고, 힘들고, 제일 무더운 사막기후에 숨통이 막히는 것 같아 귀국할 날만을 기다리는데 그는 오히려 중등지방이야말로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고 젊은 꿈을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1981년에 사우디 리야드에서 중등근로자와 외국인을 상대로 선물용이나 기념품을 판매하는 기프트 숍을 개설하여 전자제품 판매원 시절 축적한 경험과 타고난 사업 수완을 발휘해 중등드림의 꿈을 펼치게 되었다.

처음 리야드에서 우리 건설 근로자를 상대로 하던 장사가 성공을 거두면서 좀 더 많은 외국인들과 접할 수 있는 사우디 동부에 있는 알코바라는 곳으로 이주해 한양쇼핑센터라는 큰 상점을 개설하여 사업을 번창 시켰으며, 그야말로 눈코 뜰새 없는 바쁜 생활이라 결혼식도 1주일 전에 잠시 귀국하여 식만 올리고 곧바로 혼자 출국. 신희의 단꿈도 다 버리고 오직 사업에만 정진하는 교민 사회에서는 이름난 사업가로 발전 하였ند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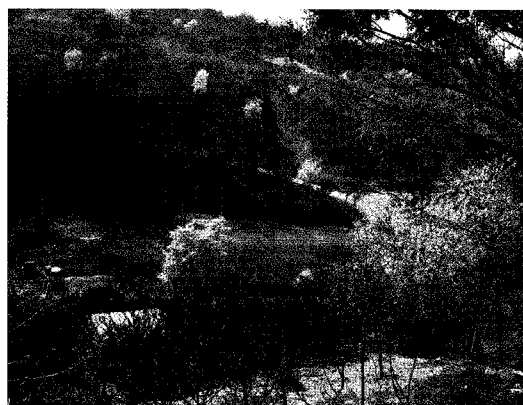
새로 신축한 조경수 유통센터



자연생 산벚꽃과 농장전경



도로변 식당과 농장전경



산벚나무와 농장전경

걸프전으로 빈털터리 귀국

결혼 후 6개월 만에 부인을 데려가 신혼살림을 차릴 수 있었으며 이후 사업은 날로 번창하여 2명의 동생과 2명의 처남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고, 현지인 9명을 고용하면서 그는 세계 각지의 40여 나라를 다니면서 각종 유명 상품을 구입해 오고, 고급 저택에 살며, 최고급 자동차를 타는 그야말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였다. 동생과 처남들은 그 덕분에 부와 경험을 얻어 지금도 뉴질랜드 등 해외에서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당시 사우디보다는 터키가 보다 안정적이고 발전성이 있어 1988년에 터키로 이주 새롭게 터전을 잡으려던 터에 1990년도 걸프전이 발발하여 우선 부인과 2명의 자녀들을 귀국 시킨 후 추이를 살펴보다 이라크의 화학무기 살포 위협에 이란으로 피난 가는데 안전한 길을 택하다보니, 해발 5,000m가 넘는 노아의 방주로 유명한 눈 쌓인 아라랏산을 36시간에 걸쳐 걸어서 넘느라 정말로 죽을 고비를 넘겼다. 이후 테헤란 호텔에서 2개월을 기다려도 다시금 터키로 돌아가 사업하기가 힘들 것 같아, 다른 나라로 사업체를 물색 중 베트남에 건물을 매입하기로 약속하고 그간 고향에 장만해 놓은 부동산을 처분코자 귀국 한 것이 “돈보다는 목숨이 귀중하니 이제는 외국에 나가지 말라”는 늙으신 부친의 간곡한 만류를 뿌리치지 못하고 외국에 있던 재산 하나 건지지 못한 채 1991년도에 고향땅에 눌러 앉게 되었다.

방향 끝에 시작한 조경수 재배

이제까지 세계 각처의 40여개 나라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없는 물품들을 구입하고 판매하며, 이 세상이 좁다하고 뛰어다니던 그가 열여덟 까까머리 총각 때 나간 후 객지로 타국으로 그것도 중동의 사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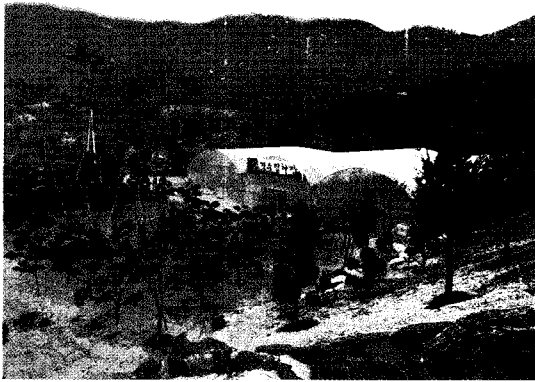
한가운데서 생활하다 고향땅이라고 찾아와 마땅히 하는 일 없이 지내려니 그 분노와 좌절과 절망감으로 이 세상에서 오직 혼자만이 버림받아 절해도도에 내 핑계 처진 것 같아 무엇을 하려고 해도 도저히 적응을 하지 못하고 마치 실성한 사람 모양 안절부절하기만 하여 특하면 배낭하나 짊어지고 정처 없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떠돌아다니다 돌아오고, 지금 생각해도 자기 자신이 어떻게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다 한다. 주변에서는 모두다 정신이상이 되었다고 수근대고 그때마다 집을 나가 해마다 보니 주로 산을 많이 찾아 갔고 산속에 가면 안정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되어 2년간의 방황 끝에 아무런 준비도 경험도 없으면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에다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하여 1993년부터 조경수를 심은것이 지금의 그린농원을 이룩하게 되었다.

흙에서 일궈낸 제2의 인생

처음 시작은 집에서 농사짓던 땅 3,000평에 흔한 수종인 느티나무, 벚나무, 주목, 단풍나무 등 묘목을 구입 하였는데 자금사정으로 2~3년만 키워 어린나무를 판



농장전경을 뒤로한 이상권 그린조경대표



유통센터내의 조경수집하장

매하다보니 재배하는 것도 미숙하였지만 판매 경험이 없어 납품만 하고 대금을 못 받은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라서 그때마다 좌절하고 그만두려 하였지만 힘들게 마음먹고 시작한 일이고, 이제까지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은 기어이 해내고야마는 성격이라 처음부터 다시 식재에서부터 병충해 방제·비료주기 등은 물론, 제일 기초가 되는 조경수들의 이름을 알기위해 주변의 사찰이나 서원, 학교, 공원, 수목원 등을 찾아다니며 나무 이름을 알기 위하여 수없이 헤매었다. 그리고 전지작업이고 풀베기고 한번 농장에 나가면 아무리 더운 여름날에도 쉬는 법 없이 그야말로 미칠 정도로 집중하고 파고 들어 주위에서 쓰러져 죽는다고 만류해도 듣지 않는 고집불통 농사꾼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마음이나 가리앉혀 안정이나 찾았으면 하던 것이 지금은 약30ha 12만평의 넓은 농원에 70여 수종 100만 본의 나무를 재배하며 누구 못지않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직원 10여명에 연간 매출 7~8억 원을 올리는 멋진 조경수 농장을 이룩하였지만, 아직도 그는 조경수에는 문외한이고 초보자라는 심정으로 배우고 익히며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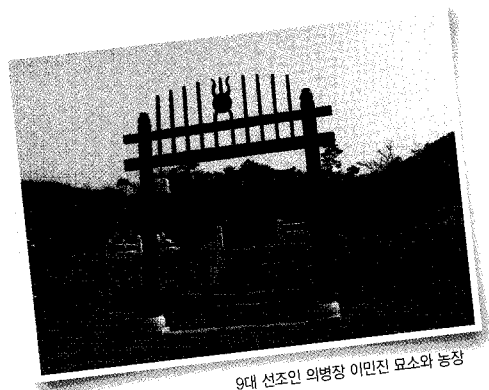
산림 복합경영과 조경수 재배법 개발

조경수는 물론 흙 만지고 농사짓는 것과는 무관한 모래사막에서 장사꾼으로 살아왔던 그가 나무를 심고 가꾸고 그것도 늘 손질하고 돌봐야 하는 조경수 재배이다 보니 그 어려움은 이루다 말할 수 없었다한다. 더구나 조경수 재배는 워낙 장기투자를 요하는 것으로 계속 돈만 들어가고 수익은 없고, 아이들은 커가고 가정살림은 더욱 어려워져 시도한 것이 토지의 효율을 높

이고 단기소득을 얻을 수 있는 복합경영을 시작하였었다. 조경수 사이사이에 산양산삼(장뇌삼) 2천평과, 취나물, 더덕, 도라지 등 산나물 3천평을 파종하여 단기소득도 올리고 토지 효율도 높일 수 있었고, 그만의 독특한 돌파력으로 난관을 헤쳐나가 남들보다 앞서겠다는 의지로 새로운 재배법과 경영법을 착안해 낸 것이 “은박지 보온법과 축산분뇨 액비법”이다. 농장이 북향의 음지로 어린나무들이 동해를 입는 피해가 많고 고민하던 중에 수도 동파 방지용 은박보온커버를 이용하여 기존에 60%밖에 안되던 활착율을 95% 이상 높일 수 있었으며, 또한 제초 작업 때도 눈에 잘 띄어 예초기 갈날에 의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고, 축산분뇨의 퇴비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침출수를 가져다 거름으로 이용하여 성장률도 높이고 비료 구입비 절약과 토양 산성화도 막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었으며, 자연생 굴취하는데 애로가 많은 가로수용 장송을 대체할 수 있는 소나무 재배를 성공하는 등 어느새 남들에게 조경수 재배기술과 경영방법을 가르쳐주는 모범농가로 되어 2004년에는 충남도지사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논산지역 조경인의 중심적 역할

그는 이제 더 이상 중동에서 장사하던 교민이 아니다. 한사람의 조경인으로서, 아니 그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 논산지역뿐만 아니라 충남일원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조경인이 되었다. 조경수 재배를 시작하던 이듬해인 1994년부터 우리 조경수협회에 가입하여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협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조경인의 단합과 공동의 이익을 추구했던 그는 일찍이 1997년부터 논산지역 조경인 30명을 규합 “논산연합조경” 법인체를 구성, 조경공사 수주와 조경수 납품의 공동화를 이루어 지금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그 덕인가 2007년에는 충남지역 1곳에 배정된 “조경수유통센터”를 유치하여 충남조경수유통



9대 선조인 의병장 이민진 묘소와 농장

영농조합 조합장을 맡아 이곳 연산면 소재지 인근에 1만 평의 부지를 구입하였다. 3년여의 고생끝에 각종 조경수를 식재하고 건물1동(150평)과 커다란 하우스 1동 등 시설물 공사를 완공하였으며, 60명의 회원들로부터 유통 의뢰를 확보하여 회원들이 안정적으로 조경수를 재배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곳 연산지역을 조경수 재배유통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만든 중추적 역할을 하였으며, 지역사회 발전에도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아 주민자치위원으로... 장애인후원회 회원으로... 체육 발전위원으로 맹활약하고 있는 인간승리의 표상이 되고 있다.


역사 탐방 및 체험학습장 건설

그의 꿈은 이제 이곳 농장을 체험 학습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연산면은 백제와 후백제의 역사 유적뿐 아니라 천연 기념물인 연산 오골계를 비롯한 대추의 집산지로 유명한 곳이다. 지금도 면소재지에는 30여 개소가 넘는 대추전문상점과 물류 창고들로 성업 중이며, 정부에서도 연산대추의 옛 명성을 찾기 위하여 대추나무 식재를 장려하여 가로변은 물론 사방에 어린 대추나무들이 잔뜩 심겨져 있다. 이런 지방 특색과 지리적인 장점 무엇보다도 농장의 위치와 교통의 이점을 살려 도시인들을 위한 자연 체험장을 구상하고 있다.

그린농원의 현재 위치나 모양은 마치 공원이나 휴게소를 연상하게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멋진 조경수 농장 앞 도로변에는 넓은 주차장과 커다란 식당 건물이 자리하고 있고, 그 옆으로 위용있는 정려문과 큰 비석이 서 있는 산소가 자리하고 있으며, 주위는 온통 멋지게 가꾼 조경수들로 꽉 들어찬 사이사이로 임도가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착각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식당과 주차장

은 현재 타인 소유이지만 정려문과 산소는 병자호란시 3,000병력을 모집하여 의병 활동을 하다 전사하신 이장권 사장의 9대조 어른인 백봉 이민진 의병장의 묘소로, 지금 그 선산에다 조경수 농장을 조성해 놓았으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농장을 찾아 쉬어가거나 산책하고 있는 휴게소 겸 관광농원화 되었다. 인근에 있는 계룡시와 대전시와는 10~20분 거리이므로 이지역의 학생과 시민들을 상대로 역사 탐방과 연계하여 직접 나무를 가꾸어 보고, 산채도 채취하고, 열매도 따볼 수 있는 체험학습장을 만들고자 2002년부터 매실나무 9,000본을 심었고 기존의 장뇌삼과 산채들은 물론 배나무 과수원 7,000평과 수백 마리의 토종닭도 키우며 꿈을 키워가고 있다.

부인 김현숙 여사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두 남매가 올해 대학 4학년으로 아들은 산림자원학과를 다니고 있어 장차 가업을 이을 수 있으며 딸은 항공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있단다. 아이들한테도 그러하지만 특히 부인에게는 미안하고, 죄스럽고, 고마운 마음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한다. 중동에서 맨몸으로 돌아와 방황할 때 MBC합창단 출신으로 피아노를 전공한 부인이 모든 집안살림을 도맡아 피아노 교습으로 집안 생계를 꾸려가고 한창 사춘기인 아이들에게 갑작스레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키워준 것이 한없이 고마울뿐이고 지금의 그린농원이 있게한 모든 공을 부인에게 돌리고 싶다한다.

이제는 집안 식구 모두가 과거 중동에서의 생활은 추억으로 남기고 온 가족이 합심단결하여 멋진 조경가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공원같은 농장전경

